

# 나는 어른들이 밉다

봉축동화

윤제학 (취재2부 부장·동화작가)



아직 조그만 애가 어른들을 미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직은 좋은지 싶은지 알쏭달쏭한 선생님이든 어른인 걸요. 그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나 선생님 때문에 미운 어른을 좋아해야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치사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어른들 중에서 엄마 아빠와 선생님은 빼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른들이 미워된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나는 어른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네에서 인사성 바르기로 소문난 아이였는 걸요. 어떤 때는 아는 어른이나보다 저만큼 앞서 가면 뛰어가서라도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른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 후회가 됩니다.

## 아는 어른을 보고도 못본척 한다는 것 쉬운일 아니지요

입학식 며칠 뒤 나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다른 애들보다 1살이 작아서 그렇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나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7살에 학교에 들어온 아이가 나 말고도 있는데 여자 아이들 중에도 나보다 작은 애는 없었습니다.

내 키가 작은 이유를 곰곰이 따져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별로 큰 편이거든요. 심한 병을 앓거나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간신히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너무 잘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죄다 내가 인사를 하면 몇번이고 머리를 쓰다듬곤 하셨는데, 그게 내 키를 작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줄어든 키는 한 뼘도 더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나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자 이번에는 또 걱정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아는 어른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평만 보며 걷는 거야.”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짝거리는 생각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갈 때부터 나는 평만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은 100걸음 아니 50걸음도 못가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현빈이 학교 가는구나. 아저씨하고 같이 갈까?”

“아빠씨, 뒤에서 오는 어른은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다 기어올라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일로 현빈이 목소리에 힘이 없을까? 늦잠 자다가 엄마한테 혼난 모양이구나. 고녀석 머리는 언제 봐도 알밤 같단 말이야.”

역시 걱정만 대로 아저씨는 몇번이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른들을 피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동네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롤러 스케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을 보고 인사를 안 해서 꾸지람 들을 일도 없고 뒤에서 다가오는 어른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신나게 놀이터로 달려 나갈 때였습니다. 다행히 길가에는 아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 모퉁이 딱딱 아저씨도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놀이터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는 여느 때보다 더 잘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갑자기 내 몸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내 몸이 딱딱 아저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 따라 차들이 왜 이리 바쁘실까? 아저씨한테 인사도 안하고.”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으으, 왜 세상에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어른들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발경도 마음대로 짓습니다. 알밤, 차들이, 도로... 하나같이 내가 끔찍하고 싫어하는 별명들인데.

“현빈아, 목욕탕 가게 어서 준비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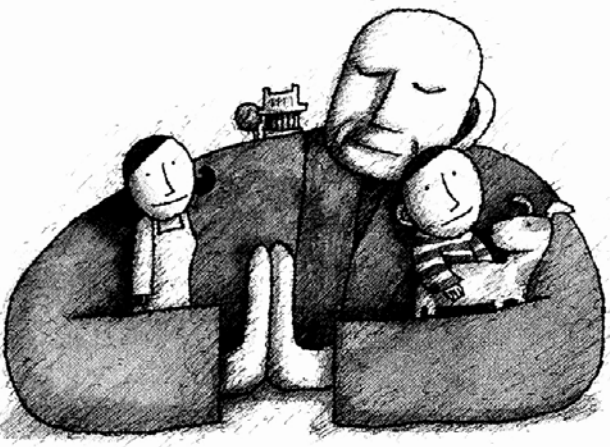
“또요.”

“포라니, 3주나 됐는데.”

“아빠도 안 계시는데.”

“엄마랑 같이 가면 되지.”

“에이, 싫어요. 이제는 초등학교생인데 어



그림·문병성

##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 애한테 사과하는 어른도 있단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너 친구 중에는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애도 있잖니.”

“그래도 싫어요. 저 혼자 갈래요.”

“혼자서? 그럼 등은 어떻게 밀고?”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는 학생이잖아요.”

“어쭙, 언제부터 그렇게 의젓해졌지? 좋아, 그럼 혼자 가 봐. 그런데 쉽지 않을 걸.”

엄마는 여탕으로, 나는 남탕으로, 나는 뿔수룩 의젓해 보이려고 아랫배를 잔뜩 부풀리고 가슴을 펴 뿔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키가 커 보이려고 발뿔꿈치도 살짝 들었습니다.

얼굴, 배, 팔다리를 다 씻을 때까지 나 같은 어린애는 물론 동네 형들도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런데 너 혼자 왔니? 아직은...”

“제가 너무 어린애라서 싫으세요? 서로 밀어 주면 좋잖아요. 넓이로 따지면 제가 손한테.”

“그건 그렇지. 그럼 누가 먼저 밀어 줄까?”

“당연히 제가 먼저 밀어 드려야죠.”

“왜?”

“제가 먼저 부탁 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둘은 서로 등을 밀어 주

렝이라고 부르기에 나이가 많아 보였고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부르기에 보통 어른과도 달라 보였습니다. “어떻게 불러야지” 하고 조금 망설이다가는 그냥 다짜고 짜 때밀이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저, 등 밀어 드릴게요. 그 대신 제 등도 밀어 주세요.”

“응? 뭐라고?”

“등 밀어 드린단니까요.”

“그래 그 소리는 나도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 너 혼자 왔니? 아직은...”

“제가 너무 어린애라서 싫으세요? 서로 밀어 주면 좋잖아요. 넓이로 따지면 제가 손한테.”

“그건 그렇지. 그럼 누가 먼저 밀어 줄까?”

“당연히 제가 먼저 밀어 드려야죠.”

“왜?”

“제가 먼저 부탁 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둘은 서로 등을 밀어 주

시작했습니다. “어... 시원하다. 너, 보기보다 팔 힘도 참 세구나. 아직 애기 같은데.”

“에? 애기 같다고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전 학생이예요. 초·등·학·생.”

“그래 그래. 내가 깜짝 실수를 했구나.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

“아니, 이럴 수가. 애한테 사과하는 어른도 있단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내비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나는 또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 등을 밀어 준 사람이 스님이지 뭐니까. 나는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속스럽기도 해서 한 동안 스님과 눈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서는 내 속을 들여다 보기도 하겠는지 슬며시 다가와서는

“자, 우리 이제 나가 볼까?”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스님과 나는 함께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일요일 한낮 봄볕이 뽕뽕했습니다. 파란 웃옷으로 갈아입은 도봉산도 기분이 좋아보였습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 스님, 조금 전에 죄송했어요. 스님이신 줄 몰랐거든요.”

“죄송하긴 뭘. 덕분에 아주 기분이 상쾌한 걸. 애,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네, 좋아요. 저도 오백원 있어요.”

“그건 너 혼자 있을 때 사 먹고 이번에는 스님이 사 줄게. 스님 등 넓이가 두 배는 됐을 테니까 당연히 내가 사야지.”

스님과 나는 도봉산으로 오르는 길목 옆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동네 사니?”

“네, 개울가 옆이에요.”

“잘 됐네. 나도 도봉산에 사는데. 그럼 우리 오늘부터 친구할까?”

“정말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기 도봉산 중턱에 있는 천축사.”

이렇게 해서 스님과 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스님께 이름을 말해 드렸답니다. 스님도 ‘운공’이라는 법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내 얘기를 들은 엄마는 되게 부러운 눈치였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자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놀고 올게요.”

“그래, 너무 늦지 말고.”

집을 나오자마자 놀이터로 가려는데 웬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런 진뿔이었습니다. 핏국물이 흐르는 길로 바쳐서 집을 잃은 개가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배도 등자죽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목덜미

를 쓰다듬자 두 무릎까지 꿇고 내 품에 안겨 옵니다. 나는 개가 저분한 것도 있고 고옥 안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선 스님 덕분애 야근 오백원으로 빵을 사서 누렁이에게 먹였습니다. 순식간에 빵 하나를 꿀꺽 하고도 계속 내 손을 핥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도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는 가야 하는데 도무지 누렁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누렁이가 싫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거든요.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운공 스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누렁이와 함께 도봉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단숨에 천축사 입구에 도착했지만 둘째 단을 오를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를

악 풀어야 했습니다. 절 마당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미리 밝혀 둔 연등만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을 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선 한숨을 들이고 나서 스님을 힐끗하고 하고 법당의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으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잠이 든 모양입니다. 퍼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렁이가 두 다리를 딱 벌리고 발자국 소리 나는 쪽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나는 떨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누렁이의 목덜미를 껴안았습니다. 누렁이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내 등을 토닥입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 ‘현빈아-’ 하고 부르며 외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대고 무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봄바람은 그 얘기를 내게도 살짝 전해 줍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올해는 하루 일찍 오신 모양이네.”

어느 틈엔가 운공 스님도 나오셔서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친했던 사이 같습니다.

운공 스님께서서는 혼잣말처럼 누렁이의 귀에 대고 무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봄바람은 그 얘기를 내게도 살짝 전해 줍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올해는 하루 일찍 오신 모양이네.”

## 절마당에 연등만

## 봄바람에 흔들릴 뿐

## 인기척이 없습니다

악 풀어야 했습니다. 절 마당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미리 밝혀 둔 연등만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을 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선 한숨을 들이고 나서 스님을 힐끗하고 하고 법당의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으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잠이 든 모양입니다. 퍼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렁이가 두 다리를 딱 벌리고 발자국 소리 나는 쪽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나는 떨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누렁이의 목덜미를 껴안았습니다. 누렁이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내 등을 토닥입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 ‘현빈아-’ 하고 부르며 외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대고 무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봄바람은 그 얘기를 내게도 살짝 전해 줍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올해는 하루 일찍 오신 모양이네.”

어느 틈엔가 운공 스님도 나오셔서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친했던 사이 같습니다.

운공 스님께서서는 혼잣말처럼 누렁이의 귀에 대고 무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봄바람은 그 얘기를 내게도 살짝 전해 줍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올해는 하루 일찍 오신 모양이네.”

### 21세기 인류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사찰음식의 진수를 배운다

### 전통사찰음식 제 4기생 모집

현대인들의 모든 병은 잘못된 섭생에서 비롯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음식만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인류의 건강식은 한국전통사찰음식 속에 있습니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천5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음식을 30여년 동안 각고의 연구 노력으로 1천여가지의 사찰음식을 설정하였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생각되었던 사찰음식을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일률적이고 자연적인 음식 만드는 법을 직접 강습과 이론으로 전수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최고 건강식으로 재인식되면서 새천년 음식문화의 기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한국사찰음식연구소에 오셔서 기(氣), 예(藝), 신심(信心)이 깃들여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맑게 해주는 전통사찰음식의 진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강일 : 2001년 5월 22일 화요일
- ✪ 수강인원 : 00명 ✪ 과정 : 6개월
-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 수료료 : 재료비 포함 월 15만원
- ✪ 문의 : 서울 불광산사
- ✪ 교통편 : 버스 : 17, 28-1, 63-1, 154 장충운동장 하차
- ✪ 지하철 : 3호선 동대입구역하차 2번출구 태극당 옆
- ☎ 02-747-8734
- HP : 018-236-8734 팩스 : 02-3672-9097

###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 이여영

###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성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골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만원)
  -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 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경음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원선민복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퇴원병원 건물)

###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증의 소가피는 한마차의 금속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 (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숯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 전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 저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 전문의의 전국 택배 배달
-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 ☎ 전화 : (031)682-5033 FAX : (031)682-5034
-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

### 합창 단원 모집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속에서 불심을 나눌 분들을 기다립니다. 창단이후 10년동안 지역사회 자체 행사 및 위문공연 등으로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펴오고 있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원이 되어서 우주법계를 울리는 음성공양의 무한한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합창단 연혁

- 1990년 창단
- 부산시민대법회 1,2,3회 출연
- 한국불교법종연합회 의회 공로패 수상
- 불교연합 찬불가경연대회 1등 수상
- KBS를 소년소녀 가장 돕기 기념공연 출연
- SBS부산방송국, 불교방송국 개국 기념공연
- 태극, 미안마 현지 촬영 한마음선원 선법가 독집 불교 TV와 공동제작
- 부산합창제 10.12.13.14회 출연
- 한마음선원 뉴욕 지원, 독일지원 대법회 출연
- 세계불교대회대회 맑고 향기롭게 부산법회 출연

### 모집대상

30세 이상 ~ 50세 미만의 여성

### 한마음선원어머니합창단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  
연락처 : (051)403-7077  
홈페이지 : www.hanmaum.org